

카밧진남V 24득점 '4회 콜드승'...우승 후보 떠올라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리그 8강팀 확정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리그 8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다.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2라운드 11일 광주일고야구장에서 무등리그 16강전 3경기와 광일리그 2경기가 진행됐다. 로즈스나이퍼스, 타요바리스타즈, 포프리가 무등리그의 남은 8강 티켓을 거머쥐었고 광일리그에서는 블랙이글스와 카밧진남V-COOL이 8강에 선착했다.

로즈스나이퍼스의 박성경이 마운드와 공격을 동시에 책임지면서 버닝을 상대로 14-10 승리를 이끌었다. 로즈스나이퍼스가 1회부터 최재복의 투런포를 앞세워 대거 8점을 뽑는 데 성공했다. 2회에는 박성경의 솔로포가 터졌다. 홈런을 날린 박성경은 승리까지 기록했다.

타요바리스타즈는 끝내기 승을 연출했다. 1회 2점을 먼저 뽑아낸 타요바리스타즈가 3-1로 앞선 5회 3실점을 하면서 3-4로 리드를 내줬다. 5회 1점을 보낸 타요바리스타즈는 남은 두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뒤 7회 승리를 확정하는 마지막 주자로 5-4 승리를 거뒀다.

1회부터 5점을 주고받은 아인스리퍼블릭과 포프리는 경기는 15-7, 포프리의 승리로 끝났다. 2회에도 6점을 보낸 포프리는 매 이닝 득점을 올리는 등 화력 싸움에 우위를 점하면서 5회를 끝으로 8강행 진출을 확정했다.

블랙이글스는 화이트위리어스와의 뒷심 싸움에서 앞서면서 9-8, 1점차 승리를 만들었다. 1-6으로 뒤진 4회 3점을 보낸 블랙이글스는 5회 1점, 6회에도 4점을 만

◇무등기 2라운드

▲1경기(5회 시간제한승)

로즈스나이퍼스 8 4 1 0 1 - 14

버닝 1 2 0 1 6 - 10

△승리투수 : 박성경 △홈런 : 최재복(1회 2점)·박성경(2회 1점·이상 로즈스나이퍼스)

▲2경기

신나부리아구단 0 0 0 1 3 0 0 - 4

타요바리스타즈 2 1 0 0 1 0 1 - 5

△승리투수 : 조진훈

▲3경기(5회 콜드승)

아인스리퍼블릭 5 1 0 0 1 - 7

포프리 5 6 1 1 2 - 15

△승리투수 : 김진호

▲4경기(6회 시간 제한승)

화이트위리어스 0 2 0 4 0 2 - 8

블랙이글스 1 0 0 3 1 4 - 9

△승리투수 : 장태호

▲5경기(4회 콜드승)

카밧진남V-COOL 8 5 3 8 - 24

청연콜가이즈 1 0 0 0 - 1

△승리투수 : 정중남

들어내면서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카밧진남V-COOL은 화끈한 공세를 펼치며 청연콜가이즈 상대로 24-1의 대승을 장식했다. 1회부터 8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인 카밧진남V-COOL은 4회까지 24점을 올리면서 24-1 콜드승을 거뒀다.

한편 아름다운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재재)가 함께하는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협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KIA 타이거즈가 후원한다. /김여울기자 wool@



11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린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리그 토너먼트 포프리과 아인스 리퍼블릭 경기. 2회초 내야안타로 진루한 아인스 김주성이 2루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IA 가을잔치 이끝 '주·범'

〈김주찬〉 〈이범호〉

“주찬이가 열심히 뛰니 집중”

“범호를 믿고 적극적인 러닝”

‘절친’의 목표는 5강·100타점

‘가을 잔치’의 꿈을 위해 두 친구가 뛰고 또 친다.

KIA 타이거즈는 나지완의 옆구리 부상으로 3번 김주찬 4번 이범호의 라인업으로 마지막 5회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호흡이 잘 맞는 두 친구다. 김주찬이 부지런히 나가서 뛰면 이범호가 집중력을 하는 타격으로 공격을 풀어가고 있다.

4번 자리에서 알짜배기 활약을 하고 있지만 이범호는 ‘4번 타자’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범호는 “4번 자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는 기분이다”고 웃었다.

여기에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김주찬과 들쭉날쭉한 타격 페이스의 필은 이범호에게는 더 집중을 하게 하는 부담 아닌 부담이다.

이범호는 “앞에서 3할5푼의 타자(김주찬)가 나가니까 기회가 많이 온다. 또 정말 열심히 뛰기 때문에 내가 집중해서 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뒤에서는 필의 컨디션

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한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며 “(나)지완이가 출루율이 좋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많다. 지완이가 돌아올 때까지 4번 역할을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뛰는 친구를 보면 더 집중이 된다는 이범호. 김주찬은 집중해서 타격을 하는 친구를 보면서 더 열심히 뛰고 있다.

김주찬은 “한 베이스를 더 가면 그만큼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뛰려고 한다”고 4번 타자를 맞는 마음가짐을 밝혔다.

다른 스타일로 뛰고 치는 두 사람이지만 목표는 똑같다. 이범호와 김주찬은 “5강을 이루는 게 가장 우선 목표다”고 이야기를 한다. 올 시즌 업그레이드된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이들에게 ‘100타점’은 또 하나의 꿈이다.

지난해 자신의 역대 최다 홈런 기록인 18개를 훌쩍 넘어 10일 현재 21개의 홈런 기록을 기록한 그는 김주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타자 입장에서 100타점은 꼭 해보고 싶다”고 100타점에 대한 욕심을 밝혔다.

이범호 역시 “내가 타점을 해야 팀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100타점은 해야한다”고 말했다. 홈런 기세도 거침없다. 이범호는 지난해 기록한 자신의 역대 최다 홈런



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KIA 이범호가 동점인 8회말 1사 1루에서 좌월 투런 홈런을 터뜨리고 홈인하며 김주찬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인 28개를 이미 넘어서 ‘30홈런-100타점’을 겨냥하고 있다.

베테랑의 책임감과 노련함으로 타선의

허리를 책임지고 있는 절친. 이들이 그러는 5강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18호 홈런...3안타 3타점

팀은 7-8 역전패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시즌 18호 홈런을 포함 3안타 3타점 4홈루로 필을 날렸다.

강정호는 11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2-0으로 앞선 3회말 2사 2루에서 왼쪽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날렸다.

강정호는 상대 선발투수인 신인 우완 로버트 스티븐슨과 2스트라이크로 맞서다가 시속 130km(80.9마일) 커브볼을 잡아당겨 비거리 101m 홈런을 만들었다.

앞서 강정호는 1회말 첫 타석인 1사 1, 2루에서도 1타점 적시타를 생산,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이때는 스티븐슨의 시속 135km(83.7마일) 커브를 공략해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전날 무안타로 침묵했지만 볼넷과 몸맞는공으로 두 번 출루한 강정호는 이 5경기 연속 멀티 홈런 행진을 이어갔다.

이 홈런은 지난 8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 이후 3경기 만에 나온 홈런이다. 또 강정호의 부상 복귀 후 4번째 홈런이다. 어깨 부상을 털고 지난 6일 돌아온 강정호는 6경기에서 4개의 홈런포를 가동했다.

강정호는 이 홈런을 포함해 이날 4타수 3안타(1홈런) 3타점 1볼넷으로 맹활



약했다. 시즌 타율은 0.255에서 0.263(255타수 67안타)로 뛰어 올랐다. 그러나 팀의 7-8 역전패를 막지는 못했다.

강정호의 호수비가 있었기에 더 많은 실점을 면했다.

무사 만루에서 강정호는 에우헤니오 수아레스의 3루수 땅볼을 넘어쳐 홈으로 송구, 실점을 막아냈다. 강정호의 재빠른 송구를 받은 포수 프란시스코 세르벨리는 1루로 공을 던져 병살을 합작했다.

/연합뉴스

“노수광 복귀까지 2주 정도 필요합니다”

덕아웃 T 특목

▲노아웃 1·3루야 = 혼돈의 5강 싸움이 전개되면서 다른 팀 경기까지 신경을 써야하는 처지가 된 KIA다. 11일 수원위즈파크에서 열린 KIA와 kt의 경기는 선데이 나이트 베이스볼로 진행됐다. 다른 4개 구장 경기가 오후 2시에 시작되었지만 KIA는 오후 5시 경기에 나섰다. 자연히

KIA 선수들은 훈련 시간에 SK와 LG의 경기 결과에 관심을 기울였다. 원정 라커룸에서 장비를 챙겨 나오던 이범호는 “(LG가) 노아웃 1·3루야”라면서 그라운드로 향했다. 이날 LG는 롯데를 상대로 12-8의 승리를 기록하면서 3연승을 달렸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 1번 타자 고민에 빠진 김기태 감독에게는 아쉬운 시간이다. 김 감독은 11일 경기에서 앞서 “노수광이 필을 제거했다. 상처가 아무는 데 2주 정도

가 걸릴 전망이다”고 언급했다. 노수광은 앞서 지난달 12일 넥센과의 원정에서 도루를 하다가 왼손 약지 골절상을 입었다. 끈질긴 승부와 빠른 발로 팀에 새로운 활력소가 됐던 노수광이 빠진 뒤 마땅한 리드오프를 찾지 못한 김 감독에게는 안타까운 부상. 김 감독은 이날 윤정우를 프로 데뷔 후 첫 리드오프로 선발 출장시켰지만, 윤정우는 세 타석에서 모두 내야 땅볼로 물러난 뒤 이호신으로 교체됐다.

▲웃 차려주고 가야지 = 홍세완 코치가 11일 훈련이 끝난 뒤 “아버님도 오셨을 텐데 웃 차려주고 가야 한다”며 유니폼을 갖춰 입었다. 해태시절부터 함께했던 오랜 친구 장성호 해설위원이 그라운드와 자별을 고하는 날. 이날 경기에서 앞서 KIA에서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해 kt를 끝으로 유니폼을 벗은 장성호의 은퇴식이 열렸다. 타격으로 타이거즈 역사에 이름을 남긴 두 사람이다. 홍세완 코치는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첫 유격수 100타점에 이름을 남겼고, 장성호 해설위원은 9년 연속 3할·10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의 위업을 남겼다. /수원=김여울기자 wool@

광주대 여자농구 정규리그 첫 우승

김진희 MVP·국선경 감독상

광주대 여자농구부가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최우수선수상과 감독상을 차지했다.

11일 광주대에 따르면 여자농구부는 김진희(2년)가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 남녀대학농구리그 시상식’에서 여대부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그는 주전 가드로 정규리그 첫 우승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진희는 정규리그 10 경기 평균 7.7점을 기록하면서 리바운드(3.6개), 어시스트(2.5개), 스틸(1.8개) 등의 고른 플레이를 선보였다.

1학년생 홍재린은 신인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우수진(4년)은 정규리그 44개의 가로채기로 스틸상을 받았다. 광주대 여자농구부를 지난 7월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끈 국선경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